

이보소 손님네야 설운 말 그만하고
 광부의 말이라도 성인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내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 큰 기틀에 준비귀천 짜여 내어
 하로 한 때 근심없어 다 줄길이 뉘 있을고
 하늘에도 변화있어 일월식을 하오시고
 바다에도 진퇴있어 조석수가 있사오니
 춘추하동 사시 때도 한서온량 돌아오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한들 고생인들 매양할가
 요즘패옥 공경태우와 금지옥엽 귀공자도
 절도고생 다 진하고, 천은입어 올라가면
 이 고생을 다 겪은 이 손님뿐이 아니로세
 그대도록 설위하며 저대도록 애틀 써여
 귀양살이 애쓰나니 쾌히 죽어 모르자니
 망해투사 하라는가 불식아사 하라는가
 자문이사 하라는가 옥독치사 하라는가
 설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사람 반이 되고
 귀양가서 다 죽으면 도중적객 뉘 있을고
 녹음방초 옥어진 데 두견 슬피 우는 곳에
 만고영웅 문헌 피가 몇몇인 줄 모르나니
 설위 죽은 시체 없고 애써 죽은 신체없네
 손님 얼굴 보아하니 피골상련 하였으니
 종이 붙인 배롱인가 두 눈 박은 수숫대인가
 십오리에 장승인가 열나흘날 제웅인가

상성한 광인인가 실혼한 병인인가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제
 발 가운데 새 날리는 정의아버 모양이니
 부러 죽지 아니해도 병이 골수 하였으니
 이 병 저 병 천만병에 그린 상사일병인가
 천리작향 혈혈하되 물 한 승 뉘 떠주며
 화타편작 다시와도 손님 병은 하릴 없네
 호호탕탕 뜬 혼백이 망해대(望海臺)를 지나갈 제

죽은 이는 쾌타 하나 산 부모를 어이할고
 상명지통(喪明之痛) 깊었으니 불효 아니 막대한가
 동생 하나 어리다니 부모 봉양 뉘가 할고
 생전불효 뉘우치며 사후불효 마자 할가
 규리홍안 젊은 아내 그도 아니 가련한가
 평생일신 좋고 굿기 손님네게 달렸다가
 하로 아침 이별하고 적적공방 홀로 있어
 지금까지 살았기는 행여 다시 만나볼가
 아침까지 반겨 들고 저녁 등화 위로하여

이보시오 손님(안조환을 가리킴)네야 서러운 말씀 그만하고,
 미친 사람의 말이라도 성인께서 가려 들으시니,
 시골사람의 말이 무식하나 이내 말씀 들어보소. (자신의 말을 경청하기를 부탁함)
 천지 인간 큰 기틀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 구별되니,
 하루 한때 근심 없이 항상 즐거운 일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식과 월식이 있고,
 바다에도 진퇴 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으며,
 춘하추동 사시절에 더위와 추위 돌아오니,
 부귀를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을 끈을 달아 옆에 채워 놓았겠는가. (부귀와 공명 모두 항상 있는 것은 아님)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고생이라고 매일 할까.
 금장식 허리띠를 두르고 옥 장신구를 차고, 높은 벼슬을 하던, 매우 귀한 신분의 귀공자도
 섬 고생(귀양살이) 다 끝내고 임금 은혜 입어 올라가면
 이 고생 다 겪은 사람이 손님뿐이 아니네.
 그토록 서러워하며 저토록 애틀 써여,
 (손님이) 귀양살이 애쓰느니 빨리 죽어 모르고자 하는데,
 바다에 빠져 죽으려는가 굵어 죽으려는가.
 스스로 목 베어 죽으려는가 독약 먹고 죽으려는가.
 서러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이 되고,
 귀양 가서 다 죽으면 섬 유배객 누가 있을까.
 향기로운 풀 우거진 곳에 두견새 슬피 우는 곳에
 만고 영웅 문헌 산이 몇몇인 줄 모르는데,
 서러워 죽은 무덤 없고 애써 죽은 시체 없네.
 손님 얼굴 보아하니 살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말랐으니,
 종이 붙은 배롱인가 두 눈 박은 수숫대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음)
 십오 리 장승인가 열나흘날, 즉 정월대보름 전의 제웅인가.
 (제웅은 짚으로 사람 형상을 만든 것.)
 미친 사람인가 정신 나간 병인인가.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제
 발 가운데 새 날리는 허수아버 모양이니,
 일부러 죽지 아니해도 병이 골수에 이르렀으니,
 이 병 저 병 온갖 병 중 상사병이 첫째 병이라.
 천리타향 외로운데 물 한 그릇 누가 떠주며,
 화타나 편작과 같은 전설적인 명의(名醫)가 다시 와도 손님 병은 어쩔 수 없네.
 아득하게 넓은 물에 뜬 영혼이 망해대를 지나갈 때
 (아마도 영혼이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라는 뜻인듯)
 죽은 이는 좋다 하나 산 부모를 어이할고.
 자식 죽은 고통 깊으니 불효 아니 막대한가.
 동생 하나 어리니 부모 봉양 누가 할고.
 살아서 한 불효 뉘우치며 죽은 후에도 불효 마저 할까.
 규중의 젊은 아내 그도 아니 가련한가.
 평생 한 몸의 좋고 나쁘기를 손님에게 의지했다가
 하루 아침에 이별하고 쓸쓸한 빈 방에 홀로 있어
 지금까지 살았는데 행여나 다시 만나볼까.
 아침까지 반겨 들고 저녁 등불에 위로 삼아